



## 박소현의 섹.시.토.크

A아파트 105동에서 괴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가장의 높은 귀를 기다리며 드라마를 보다가, 누군가는 인터넷 맞고를 치다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누군가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놀라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어느 집에 강도가 든 게 아닌가 싶었다. 그만 소리는 날카롭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TV 볼륨을 낮추었고, 누군가는 스피커 소리를 죽였고, 또 누군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경문을 열어젖혀 진원지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몇 초 뒤 들려온 괴성은 좀 전의 것과 느껴지는 음색이 달랐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것은 괴성이 아니라 교성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적어도 A아파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작년에 이사온 신혼부부가 육실에서 애정행각을 심하게 벌여, 아래층에 사는 아줌마가 몇 명에게 그 사실을 밝힐 적은 있지만 그들의 소리는 아래층만 괴롭혔다 뿐 나머지 이웃에게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들을 정도의 큰

소리였던 것이다.

소리는 20분이 지나도록 계속되었다. 어디 모텔촌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교성이 오페라처럼 흘러나왔으니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브랜드 아파트에 평수도 넓어 입주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했다. 베란다에 빨래가 보이도록 너는 것조차 자제하는 그런 아파트에 흥들

아파트 한밤의 교성  
소음 아닌 자극으로  
“덕분에 모처럼 남편과...”  
“어머, 우리도 했는데”

가를 무색케하는 교성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엄마들이 서둘러 한 집으로 몰려갔다. 티타임을 방지한 수다 떨기의 주제는 단연 어제 밤의 교성이었다.

“3, 4호 라인에서 나는 소리 아니었어?” . “아

니야. 내가 계단까지 나가서 들어본걸. 우리는 아니고, 5, 6호 라인 같던데?”, “우리 쪽도 아냐. 지난번 육실에서 굉장히 902호 아닐까?”, “아까 802호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던데?” 진원지는 여전히 파악이 되지 않았다.

“정말 미친 사람 아냐? 아파트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그러게. 아파트 주민이

“저기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실은 어제 그 소리 덕분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잠자리 한 거 있지.”, “어머, 우리도 했는데.”, “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모인 다섯 명 중 어젯밤 교성에 자극 받아 잠자리를 한 사람은 모두 세 쌍이나 되었다.

“우리가 이 정도이니, 다른 사람들도 꽤 했을 거야.”, “이 정도 확률이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 반은 하지 않았을까?”

아파트에서 그렇게 교성을 지른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성토하면서도 그 잘못과 무례의 이득을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자극 없는 관계, 브랜드 아파트처럼 외관상 보기 좋은 부부지만 실상은 뜨거움도 설레도 없었던 부부들에게 어젯밤 울려 퍼진 원시적인 비명이 오랜만에 감춰진 본성을 자극해 준 것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맞아. 아파트값 떨어지겠다.”

결론은 역시 도덕적으로 끊어졌다. 그러나 현관문을 나서며 누군가 내뱉은 한 마디에 다들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트리고 만다.

“오늘 헤赤 좋은 여자들은 모두 105동 아줌마들일 거야.” <연애칼럼니스트>

## 드라마로 재탄생한 ‘식객’ 열풍

만화에 이어 영화, 그리고 다시 드라마로 재탄생한 작품들이 이번 주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배우 김혜수의 정마담 연기가 둔보였던 영화 타짜가 이번에는 드라마로 인방을 찾는다. 드라마 타자에서는 성현아가 권능적인 정마담 역할을 맡는다. 고니는 장혁, 소꿉친구이자 첫 사랑은 한예슬이 캐스팅되면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전과를 탄 드라마 식객도 네티즌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성찬 역을 맡은 김래원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연기로 네티즌의 호평

을 받으며 인터넷에서 식객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수에서 엄마로 변신한 ‘자우립’의 리더상이 김윤아도 오랜만에 인터넷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 인이자 치과의사인 김형규와 결혼한 김윤아는 방송을 통해 자신을 속 빛들은 8개월 된 아들을 공개하면서 김색에 순위에 올랐다.

프로야구 SK와이번스는 육설 파운드으로 네티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파운드 확산되자 SK는 사건의 당사자 윤길현을 2군으로 강등시킨 데 이어, 19일 김성근 감독이 육설 파운드의 책임을 지고 두산

과의 잠실경기에 출장하는 등 사건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유로 2008도 축구팬들의 성원을 입고 인기 검색 어에 등극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유로 2008의 8강 주인공이 속속 가려지면서 잠을 잊은 올빼미 축구 팬들의 흥미가 더해지고 있다.

유로 2008 인기는 끝면서 러시아를 8강에 진출시킨 히딩크 감독과 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루마니아가 한 조에 속한 ‘죽음의 조’도 덩달아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식객에서 성찬역을 맡아 호평받고 있는 배우 김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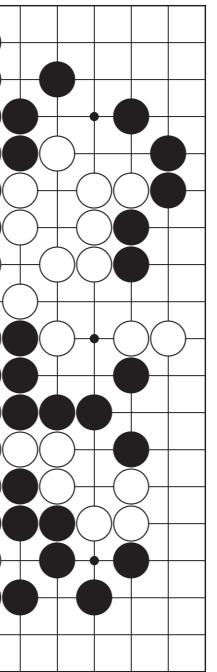
## 검색절정 키워드

## 검색

만화에 이어 영화, 그리고 다시 드라마로 재탄생한 작품들이 이번 주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배우 김혜수의 정마담 연기가 둔보였던 영화 타짜가 이번에는 드라마로 인방을 찾는다. 드라마 타자에서는 성현아가 권능적인 정마담 역할을 맡는다. 고니는 장혁, 소꿉친구이자 첫 사랑은 한예슬이 캐스팅되면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전과를 탄 드라마 식객도 네티즌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성찬 역을 맡은 김래원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연기로 네티즌의 호평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비밀대회

이미 집으로는 흑이 많아  
이 부족한 형  
세로 좌상귀에 흑 ▲로  
쳐들어간 수  
가 최후의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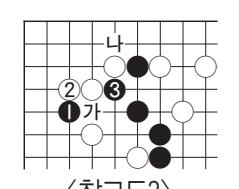
그런데 ▲로는 먼저 ‘참고도1’의  
흑 1로 들여다 보는 수가 좋았다. 백  
2로 이으면 그때 3으로 둔다. 1과 2의  
교환이 상당히 이득으로 9까지 쉽게  
살 수 있었다. 또 ‘참고도2’의 백 2로  
받는 것은 흑 3으로 두는 수가 좋은  
수로 ‘가’와 ‘나’가 맞보기로 백의 응  
수가 없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하설위원>

## 때늦은 좌충우돌

2회전 2국 6보(121~150)

白 김광식 5단  
(주 송림)  
黑 표정채 5단  
(빛고을 교사회)



승산이 없다. 표정채 5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흑 123부터 149까지 좌충우돌하며 수단을 강구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김광식 5단의 칠통같은 수비를 뚫을 수는 없었다. 150에 이르러서는 대차로 이후의 수순은 총보를 보자.

43년생 일중의 사기에게 엄길 수 있으니 신중하라. 55년생 주변인을 살펴보라. 69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72년생 주변에 시끄러운 문제에 대가로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3, 04

36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도래 한다. 48년생 날·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60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72년생 주변에 시끄러운 문제에 대가로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2, 23

37년생 풍류에 어울려 하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 49년생 원거리 여행은 삼가고 주변을 돌려보라. 61년생 주변인을 살펴보라. 73년생 바람이 일수 있으니 중정하라. 85년생 자기생활에 민족을 염두해라. 행운의 숫자 : 05, 15

38년생 짐작으로 밟힐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50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될 수 있다. 62년생 형제, 배우자와 불편사건에 밟힐 수 있다. 74년생 소사에 시비 망언 언쟁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14

39년생 건강에 유념하라. 51년생 드디 많으나 남의 말을 조심하라. 63년생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재검토해 봄 필요가 있다. 52년생 주변의 질투 모함으로 손실수가 있으니 적극 참여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7, 13

40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 하라. 52년생 협조자는 없는 듯하고 요행을 바리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64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영진 등 가내에 경사가 있다. 76년생 주변으로 손재 소비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11

41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53년생 절대 육십내지 말고 차분하게 보고 모든 것은 짐작하라. 65년생 소사의 언쟁이 부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 77년생 일겁격히 시작되니 자기를 펴풀어보라. 행운의 숫자 : 08, 12

42년생 희망찬 설계를 구상했으니 모든 일은 순행 하리라. 54년생 생색에 험난할 수 있으니 자체 하라. 66년생 퇴직한 길목에서 피곤이 종해질까 두렵다. 78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를 찾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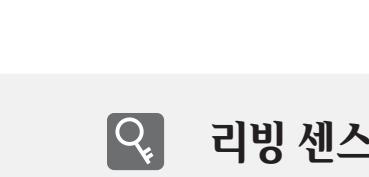
43년생 일중의 사기에게 엄길 수 있으니 신중하라. 55년생 주변인을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69년생 좋은 계획은 좋은 인연을 만든다. 79년생 금하게 참여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9, 21

44년생 자신의 불편사건 주변에까지 미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56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다. 68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80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베틀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32

45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쓰라. 57년생 생 좋은 친구와 좀 더 시간을 가져라. 69년생 흥이 복으로 변하니 완벽한 결정을 내려라. 81년생 복이 흥이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심사숙고하라. 행운의 숫자 : 32, 39

46년생 걸 다하고 속 다른 주변인물로 인해 끌치 아픈 일을 만든다. 58년생 파운드는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행여 아파야 한다. 70년생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82년생 일었던 주인을 찾은 입장이다. 행운의 숫자 : 34, 44

47년생 협조를 사랑이 괴롭혀 오는 마가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하라. 59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건을 할 수도 있다. 71년생 새로운 문서와 재물이 신생된다. 83년생 신뢰를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행운의 숫자 : 44, 45



## 리빙 센스

## 알감자 조림

알감자 600g, 다진마늘 1/2큰술, 실타, 통깨, 물 2컵, 조림장(간장 4큰술, 설탕 2큰술, 조청 1큰술, 포도씨유 1큰술)

① 알감자를 찬 물에 20~30분 정도 담가 흙을 불린 후 깨끗이 씻어 놓는다.

② 냄비에 알감자를 담고 물을 2컵 정도 부어준 뒤 익혀준다.

③ 물이 반정도 줄어들면 조림장을 넣고 조림한다. 너무 많이 뿌리거나면 감자가 으깨지므로 가급적 뒤집어준다.

④ 조림 장이 살짝 날을 만큼 조려주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마무리한다.

⑤ 완성된 감자 조림을 그릇에 담고 잘게 썬 실과 통깨를 뿌려준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음 5월 17일 수요)



36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도래 한다. 48년생 날·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60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72년생 주변에 시끄러운 문제에 대가로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3, 04



37년생 풍류에 어울려 하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 49년생 원거리 여행은 삼가고 주변을 돌려보라. 61년생 주변인을 살펴보라. 73년생 바람이 일수 있으니 중정하라. 85년생 협조자와 대가로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2, 23



38년생 짐작으로 밟힐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50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될 수 있다. 62년생 형제, 배우자와 불편사건에 밟힐 수 있다. 74년생 소사에 시비 망언 언쟁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15



39년생 건강에 유념하라. 51년생 드디 많으나 남의 말을 조심하라. 63년생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재검토해 봄 필요가 있다. 52년생 협조자는 없는 듯하고 요행을 바리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64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영진 등 가내에 경사가 있다. 76년생 주변으로 손재 소비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7, 13



40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 하라. 52년생 협조자는 없는 듯하고 요행을 바리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64년생 협조자는 없는 듯하고 요행을 바리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76년생 주변으로 손재 소비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11



41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53년생 절대 육십내지 말고 차분하게 보고 모든 것은 짐작하라. 65년생 복이 흥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77년생 차운인을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89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90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베틀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21



42년생 희망찬 설계를 구상했으니 모든 일은 순행 하리라. 54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건을 할 수도 있다. 71년생 새로운 문서와 재물이 신생된다. 83년생 신뢰를 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행운의 숫자 : 28, 32